

우리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 변화 분석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래금융연구실
2020. 8. 27

- 우리카드 결제액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소비 수준과 트렌드 변화를 분석
- 주간 카드결제액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감한 8주차(2.29일)~17주차(5.2일) 동안 7.3%(YoY) 감소하였으나 7.4일 현재 0.4%(YoY)로 개선
 - 상반기 누적 결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
- 코로나19 이전(1.5일~2.1일 평균=100p) 대비 결제금액의 상대 크기를 나타내는 '소비지수'는 7.4일 현재 92.6p
-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실내공간을 기피하면서 가정생활, 야외활동, 비대면 관련 결제가 늘어났고, 코로나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의류 구입 등의 일상 소비도 5월 이후 회복된 반면 다중이용시설, 장거리 이동, 여행은 부진이 지속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졌으나 철저한 방역대책과 위기관리로 불확실성을 완화할 경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비대면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다중이용서비스 수요는 감소하는 등 소비패턴 변화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회사 등은 이러한 코로나 이후 사회·구조적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추진과 경영전략에 반영할 필요

작성자: 김수진 수석연구원 (02-2173-0570)

책임자: 권우영 실장 (02-2173-0582)

1. 우리카드 빅데이터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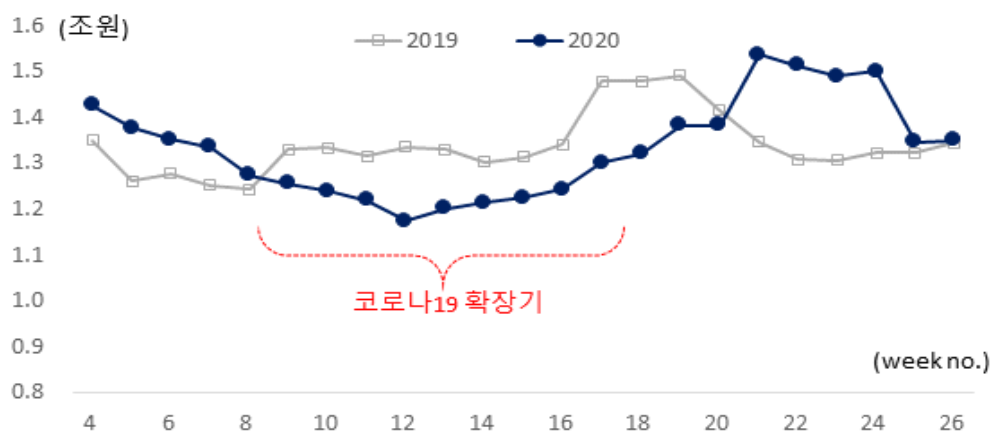
- 우리카드 빅데이터¹⁾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의 소비 변화를 분석
- 주간(4주 이동평균) 카드 이용금액을 전년동기 및 2020년 중 코로나 이전 (1.5일~2.1일)과 비교

■ 우리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카드 이용금액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 12주차(3.28일)에 -12.8%(YoY)까지 감소하였으나 소비심리 회복과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6월 이후 전년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반등

- 상반기 누적 결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
- 주간 결제액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감한 8주차(2.29일)~17주차(5.2일) 기간 동안 7.3%(YoY) 감소하였으나 7.4일 현재 0.4%(YoY)로 개선
 - * 상반기 중 코로나19 확산이 집중되었던 기간은 총 75일이며, '확장기(3.11일~4.7일)' 중 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구분	기간	일평균 신규확진자	누적확진자(기말 기준)
급증기	2.21~3.10 (19일)	400명	156 → 7,755 명
확장기	3.11~4.7 (28일)	94명	10,384명
완화기	4.8~5.5 (28일)	5.5일 신규확진자 최저(2명)	10,806명

우리카드 주간 결제액(4주 이동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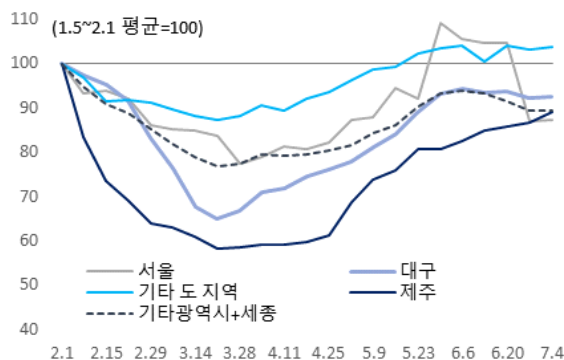


자료: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 매주(일~토) 우리카드 개인회원, 법인회원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액(승인액)의 4주 이동평균값 기준. 가맹점 업종은 BC카드 중분류 업종을 기초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재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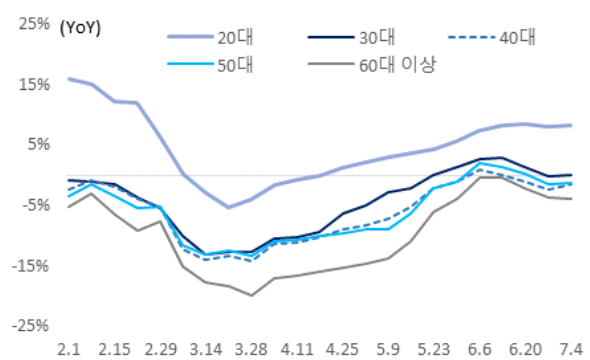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비(카드 결제액) 수준을 지수화한 ‘소비지수’로 보면 7.4일 현재 결제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7.4% 낮은 수준
 - * 소비지수: 1.5일~2.1일 평균 주간 결제액을 기준값(100p)으로 하여, 기준값 대비 주간 결제액의 상대 크기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산출. 7.4일 우리카드 전체 결제액의 소비지수는 92.6p
- 지역별(가맹점 소재지)로는 3월 중 관광객이 급감한 제주와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의 소비지수가 각각 58.4p, 65.2p까지 하락하여 소비 감소의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 7.4일 현재 소비지수는 대구 93p, 제주 89p로 회복
- 반면 확진자가 적었던 기타 도지역의 경우 코로나 위기감이 높았던 기간에도 소비지수가 90p 내외를 유지하였고, 7.4일 현재 경기(106p), 충북(106p), 충남(103p), 세종(101p), 강원(101p) 소비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
-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20대는 소비가 가장 부진했던 3월에도 카드 결제액이 5%(YoY) 감소에 그쳐 코로나19 충격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활동량 감소도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이상은 3월 중 결제액 감소율이 20%에 육박하였고 최근까지 전년도 수준을 하회

지역별 카드결제액 소비지수 추이



자료: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령별 카드결제액 추이



자료: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소비 유형별로는 가정생활, 야외활동, 비대면 관련 결제액이 늘어났고, 코로나 19 확산세가 둔화된 5월 이후 의류 구입 등의 일상 소비도 회복된 반면 다중 이용시설, 장거리 이동, 여행은 부진이 지속

- * BC카드 중분류 업종을 기준으로 주요 소비 분야를 뽑아 10개 유형(유통, 개인서비스, 의료·약품, 내구재, 레저·취미, 비내구재, 교육, 요식업, 여행·숙박, 교통)으로 재분류

- 10대 주요 소비유형의 상반기 결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5.2% 늘어나 전체 카드 결제액보다 높은 증가율
- 코로나 이후 소비 회복정도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면 ① 유통, 개인서비스, 의료·약품은 상반기 누적 결제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 ② 내구재(자동차, 가전 등)와 레저·취미(골프장, 헬스클럽 등), 비내구재(의류, 화장품 등)는 5월을 전후로 소비가 빠르게 회복, ③ 교육과 요식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나 감소세가 완화, ④ 여행·숙박과 교통은 전년동기 대비 결제액이 40% 이상 감소한 부진 상태가 지속

업종별 카드결제액 추이

구분	유형*	포함 업종**	비중 (%)	상반기 증감률 (YoY, %)	소비지수 (7.4 기준, p)
① 증가	유통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수산물, 인터넷상거래, PG가맹점 등	38.9	+25.8	84.6
	개인서비스	이미용원, 피부관리, 안마시술, 세탁소, 자동차정비, 통신서비스	4.7	+7.3	114.5
	의료·약품	병의원, 한의원, 약국, 가축병원 등	7.8	+0.8	98.5
② 회복	내구재	가전등전기제품, 주방용구, 자동차, 이륜차 등 기타운송수단	4.3	-2.5	137.3
	레저·취미	골프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클럽, 노래방, 당구장, PC방, 사우나, 문화시설 등	2.0	-12.0	121.9
	비내구재	서적, 문구완구취미, 신변잡화, 의류, 화장품, 스포츠레저용품	3.2	-12.3	104.1
③ 완화	교육	초중고대 교육기관, 기타학원, 유치원	2.4	-12.6	95.4
	요식업	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14.1	-10.8	93.1
④ 부진	여행·숙박	면세점, 여행사, 호텔, 콘도 등	0.8	-40.0	55.2
	교통	택시, 렌터카, 항공사, 고속버스, 철도 등	1.3	-43.9	53.9
소계			79.6	+5.2	91.7
우리카드 총 결제액			100.0	+3.0	92.6

자료: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구분, ** BC카드업종 분류(중분류) 기준

*** 불포함 업종 : 주유(비중 6.5%) 보험(2.1%) 용역서비스(4.9%), 기타업종(6.5%) 제외

■ 주요 산업·경제지표도 우리카드 빅데이터와 유사한 흐름

(i)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이동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대중교통 이용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공원 등 야외지역은 유동인구가 증가

☞ 서울 지하철 승차인원은 3~5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고, 6월도 -21.6%(YoY)로 저조

☞ 구글 이동성지수에 따르면 8.21일 기준 소매시설 이동인구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5% 감소. 반면 공원지역은 4월 이후 평균 37% 증가한 수준을 유지

(ii) 소매판매액 증감률은 3월 -7.0%(YoY)에서 6월 +5.3%로 상승

☞ 6월 기준 승용차(+55.9%), 가전(+24.6%), 가구(+28.3%) 등 내구재와 의약품(+12.5%) 소매판매액 증가

☞ 의복은 3월 -39.4%에서 6월 -4.8%, 같은 기간 화장품은 -27.6%에서 -15.6%로 감소 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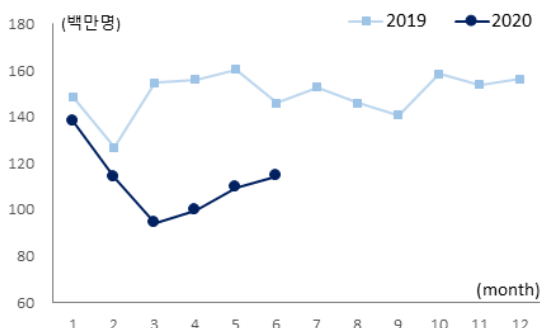
☞ 상반기 소매판매액 총액은 0.2%(YoY) 소폭 감소

* 재난지원금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상반기 2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 중 재난지원금 추정액(2분기 이전소득 증가분) 비중(5%)과 소비성향(67.1%)을 감안할 때 상반기 가계소비의 3.5% 가량이 재난지원금에서 유발된 것으로 추정

(iii)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4월 -6.1%에서 6월 -0.1%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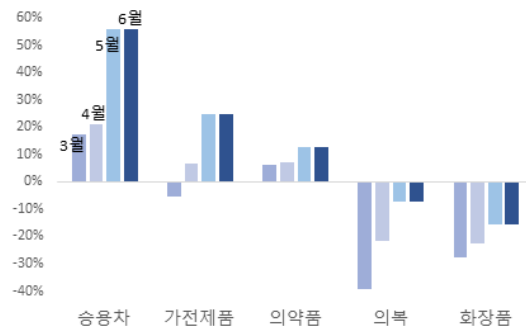
☞ 반면 경기장운영(6월 생산지수 -100%(YoY)), 여행사(-90.3%), 항공여객운송(-87.6%), 영화관(-83.2%), 유원지·오락장(-49.6%), 유택업(-35.7%), 숙박(-34.8%) 등 장거리 교통수단과 다중이용 서비스업은 부진

월별 서울지하철 승차인원 추이



자료: 서울교통공사

주요품목 소매판매액 증감률



자료: KOSIS

2. 업종별 카드결제액 추이와 특징

- 전반적으로 외출이 줄어든 가운데 온라인수업, 재택근무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정용품과 비대면 소비 증가
- 실내시설 기피 경향에 따른 반사효과로 야외활동 관련 제품·서비스 수요 확대
- 많은 사람들이 물리는 시설이나 공유하는 제품보다 개인에 맞춤형된 품목 선호
- 메르스 사태 등과 달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상시화되면서 일상소비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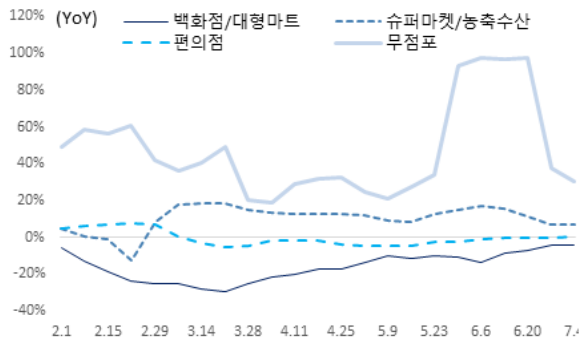
① 상반기 결제액 증가 : 유통, 개인서비스, 의료·약품

■ [유통] 온라인쇼핑과 음식료품 소비 확대

- 상반기 유통업 결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
 - 코로나19 전후의 추이를 비교하면 연말·연시와 설 명절 효과로 1월은 유통업 결제액이 평소 보다 높은 특징 때문에 7.4일 현재 소비지수는 85p에 그침
- 채널별로 보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며 유통업 결제액 중 무점포유통(인터넷 상거래, PG가맹점²⁾, 홈쇼핑 등) 비중이 2019년 58%에서 2020년 상반기 64%로 확대
 - * 무점포유통업의 70%를 차지하는 PG가맹점의 경우 음식배달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요식업 관련 결제분을 일부 반영하고 있음에 주의
- 외식·외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3월 이후 농축수산물과 슈퍼마켓 결제액이 증가하고 있고, 생필품 위주의 편의점 또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3월 결제액이 급감한 이후 감소세가 완만히 축소
 - * 유통채널별 2020년 상반기 결제액 증감률(YoY) : 무점포(48.5%), 농축수산물(15.95%), 슈퍼마켓 등(12.7%), 편의점(3.1%), 백화점(-3.6%), 대형할인점(-9.9%), 기타(-16.0%). 면세점은 불포함(여행 그룹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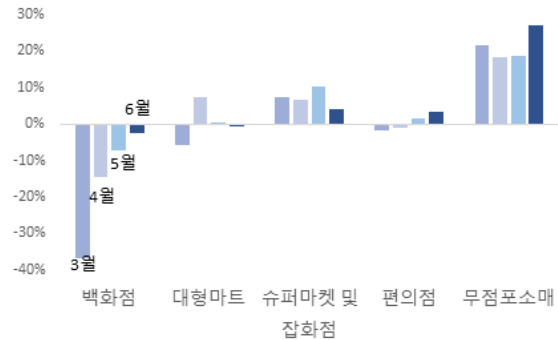
2) PG가맹점: 중소형 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진행하고 카드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업체. KG 이니시스, NHN KCP 등의 PG사를 통해 카드결제가 진행됨

우리카드 유통채널별 주간 결제액



자료: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업체별 월별 소매판매금액 증감률



자료: KOSIS

■ [개인서비스] 핸드폰요금 등 통신서비스 결제액 큰 폭으로 증가

- 게임 등 모바일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상반기 통신서비스(개인서비스 부문 결제액의 56%) 결제액은 13.1%(YoY) 증가
- 5월 이후 이·미용,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가 개선되면서 통신서비스 외 개인서비스도 전년동기 및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 7.4일 전체 개인서비스와 통신서비스 제외한 경우 소비지수는 각각 115p, 101p

■ [의료·약품] 마스크 구매 효과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입이 늘어나며 상반기 약국 결제액은 8.6%(YoY) 증가한 반면 병·의원 결제액은 3.3%(YoY) 감소
 - 주요 의료시설 중에는 한의원과 건강진단시설의 상반기 결제액이 각각 -11.1%(YoY), -10.7%(YoY)로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
- 다만 의원의 경우 5.30일 이후 주간 결제액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로 전환하여, 코로나 위기감으로 미루었던 치료를 받는 등 일상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내구재, 레저·취미, 비내구재

■ [내구재]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모두 소비 개선

- 상반기 중 이륜차 등 기타운송수단은 25.0% 증가하였고, 가전(10.2%), 가구(4.0%), 주방용구(0.3%) 모두 증가

- 대중교통 기피와 날씨 변화 요인 등으로 이륜차, 킥보드 등 기타운송수단의 소비지수가 200p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
-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영향과 상반기 이사수요 증가 등으로 가전, 가구, 주방용구 소비가 확대
 - * 2020년 상반기 전국 주택거래량은 97만호로 전년동기 대비 43.3% 증가
- 자동차는 1~3월 결제액이 전년동기 대비 -28.0%로 부진하였으나 생산 정상화, 신차 출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효과로 4~6월 이후 9.4% 증가

■ [레저·취미] 야외시설 이용은 급증한 반면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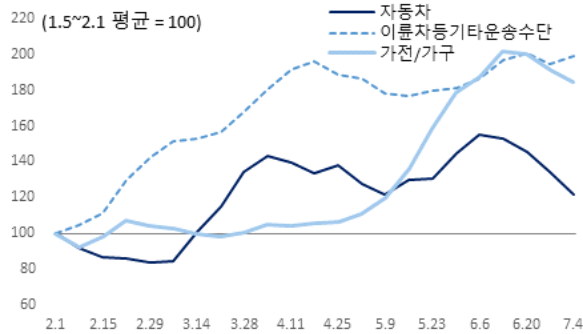
- 레저·취미 중 야외시설(골프장 등)의 상반기 카드 결제액은 11.5%(YoY) 증가
 -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인식과 날씨 변화 등으로 이용이 늘어난 영향
 - *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소비지수 각각 552p, 143p (7.4일)
- 반면 실내 다중이용시설(헬스클럽, 노래방, PC방, 사우나 등)과 문화(갤러리 등) 관련 상반기 결제액은 각각 19.4%(YoY), 30.8%(YoY) 감소
 - 실내 다중시설 이용 결제액은 4월 저점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7.4일 현재 소비지수가 69p에 그쳐 코로나19 이전을 크게 하회
 - 그러나 실내 시설 중 헬스클럽 결제액은 5.16일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운동 등의 일상 소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비내구재] 5월 이후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

- 상반기 결제액은 화장품(-20.9%, YoY), 의류(-17.7%), 서적·문구·완구(-10.4%), 스포츠레저용품(-8.4%), 신변잡화(-6.1%) 모두 감소하였으나 5월 이후 소비지수가 100p 이상으로 상승하며 소비가 정상화되는 양상
-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 변화에 따라 소비개선 속도는 품목별로 차별화
 - 외부활동 증가로 스포츠레저용품 소비는 빠르게 회복
 - 반면 마스크 사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파운데이션, 파우더 등 피부미용제품 소비가 줄어들어 화장품 결제액은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상태가 지속
- 다만 대부분의 비내구재 품목별 소비지수가 5.30일~6.20일을 고점으로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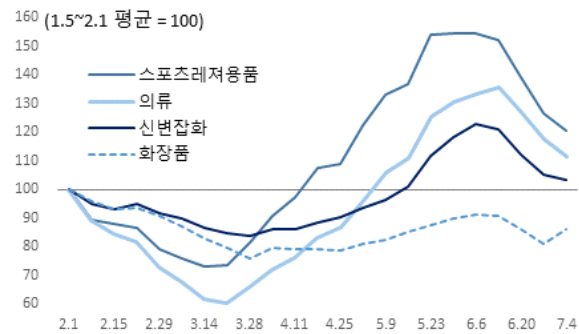
다소 하락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소멸의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

우리카드 내구재 주간 결제액



자료: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카드 비내구재 주간 결제액



료: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③ 소비 감소세 완화 : 교육, 요식업

■ [교육] 유치원, 초중고 교육기관은 전년 대비 10% 내외 감소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외국어학원, 자동차학원 등 성인 교육 기관은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

- 3~4월 결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4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5월 이후 완만히 감소세가 축소
 - 상반기 누적 결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12.6% 감소
 - 소비지수는 74p(3.21일)에서 95p(7.4일)로 개선

■ [요식업] 일반음식점은 코로나19 이전에 근접한 수준까지 개선

- 상반기 일반음식점(제과점 포함) 결제액은 10.2%(YoY) 감소하였고, 유흥주점은 36.4% (YoY)감소
- 일반음식점 소비지수는 72p(3.21일)까지 하락한 후 94p(7.4일)로 회복
 - * 배달서비스업을 통한 결제의 경우 유통업 내 PG가맹점 실적에 포함되어 있어 포장 매출이 많은 음식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가능성
- 반면 유흥주점 소비지수는 58p(7.4일) 낮은 수준을 유지

④ 회복지연 : 여행·숙박, 교통

■ [여행·숙박] 해외여행 수요 절벽으로 이용건수와 건당단가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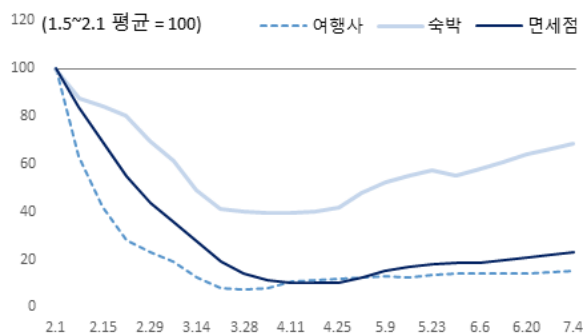
- 상반기 여행(면세점, 여행사) 결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69% 급감하였고, 숙박 또한 -26.4%로 부진
- 숙박은 국내여행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이용건수는 3~4월 평균 -40%에서 최근 -20%로 감소 폭이 완화되었고, 특급호텔과 콘도의 건당결제액은 전년 동기를 10% 가량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

■ [교통] 항공사, 고속버스, 철도 등 장거리교통 이용 감소

- 항공사는 해외여행 공백으로 건당 결제액이 전년동기의 15%에 그쳐 5~6월 들어서도 결제액이 -95%(YoY)로 부진
- 국내 이동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장거리 수요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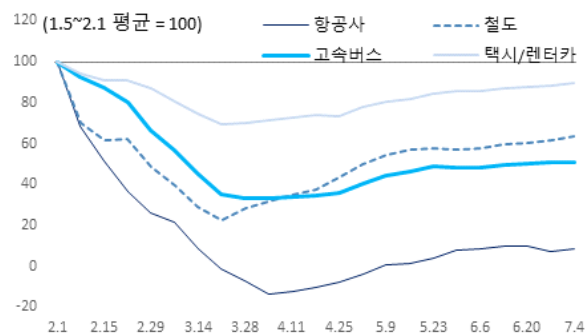
* 7.4일 현재 고속버스와 철도 소비지수 각각 60p, 71p

우리카드 여행·숙박 주간 결제액



자료: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카드 교통 주간 결제액



자료: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시사점

- 우리카드 결제액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상반기 소비액은 코로나19 여파로 3~4월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화 됨에 따라 빠르게 개선
- 8.13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며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나 상반기 대비 사회적 대응체계가 개선되었고, 개인생활 적응도 또한 높아져 있는 상태로, 철저한 방역대책과 위기관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경우 소비 급감 같은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1차 확산기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필수소비재 외에 취미용품, 의류 등의 선택적 소비재 소비가 개선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비대면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다중이용 시설·서비스 수요는 감소하는 등 소비 패턴 변화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코로나 이후 사회·구조적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추진과 경영전략에 반영할 필요